힘찬 첫 발 내딛은 '제휴카드폐지비상대책위원회'

"자영제과점의 꿈을 더 이상 짓밟지 마라"

지난 6월 16일 '이동통신사 제휴카드폐지 및 생존권 보호 비상대책위원회'가 결단식을 갖고 정식 발족했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제휴카드 할인에 대한 자영제과점의 불만이 극을 치닫고 우후죽순 격으로 문까지 닫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출발부터 불공정한 경쟁을 강요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생존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선출된 8명의 공동위원장은 전국 1만 여 자영제과점을 대표해 대기업이 앞장서 행하는 '영세 자영업자 죽이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글_김미선 기자 · 사진_전문식(인물), 주현진(이미지)

사례 하나. 지난 5월 대구의 ○○제과점 주인은 고객의 황당한 요구를 듣고 맥이 탁 풀리는 기분이었다. 2호짜리 케이크를 구매한 20대 여자 고객이 "건너편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는 제휴카드만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20%나 싸게 살 수 있는데 똑같은 케이크를 훨씬 더 비싸게 파는 건 정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깎아달라고 조르기 시작한 것이다. 주인은 건너편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빵 값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차저차 설명하고 케이크 값을 제대로 받기는 했지만 20년 넘게 딴 생각 없이 제과점 경영에만 힘써 온 결과가 고객들에게는 한낱 '사기꾼'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못하다.

사례 둘. 몇 년 전부터 재료값이 끝도 없이 오르고 있다. 경기도 광주의 ××제과점은 20여 년 전부터 줄곧 한 자리에서만 빵을 구워온 동네 토박이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제과점과 불과 10미터도 안 되는 곳에 그것도 출입문을 마주보고 들어섰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똑같은 업종을 코앞에 오픈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일 아니냐"고 항의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혼자서 수백 번 얘기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할 뿐 결코 달라질 수 없는 상황이란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제과점 주인은 한 단골고객이 지나가는 말로 "빵 값을 40%까지 할인해주는 카드도 있다"고 내뱉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느 누가 40%나 비싼 돈을 주고 빵을 사먹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대책이 안 선다.

자영제과점이 시름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경기 탓인 줄로만 알았다. 제품을 잘 만들고 나만 잘 하면 잠시 주춤했던 고객의 발길이 다시 돌아올 줄로만 믿었다. 경쟁력이 없는 빵집은 시장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세상의 당연한 이치지만 지금 자영제과점이 처해있는 문제의 핵심은 그렇게 단순하지 만은 않다. 자영제과점은 시장경쟁의 출발선에서부터 프랜차이즈 제과점보다 한참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

자영제과점들이 생각하는 가장 주요한 불공정 요인은 다름 아닌 이동통신사 제휴카드를 등에 업은 프랜차이즈 제과점들의 할인판매다.

자영제과점 뜻 모아 비상대책위원회 발기

자영제과점이 스스로 일어서기 시작했다. 지난 6월 1일 대한제과협회 지하 회의실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자영제과점들의 목소리로 들끓었다. 빵 만들던 손을 앞치마로 훔치고 부랴부랴 회의에 참석한 서울 · 경기지역의 제과인은 물론이고 부산 · 대구 · 광주 · 울산 · 전주 등 먼 여정을 마다 않고 올라온 지방 제과인의 성난 목소리는 '자영제과점의 생존권 회복' 으로 모아졌다.

그들은 "지금의 이동통신사 제휴카드는 그렇지 않아도 상도의에 어긋나는 각종 횡포를 일삼는 '골리앗' 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며, "그들에 비하면 자영제과점은 작은 '다윗' 에 불과하지만 서로 힘을 합치면 반드시 자영제과점 붕괴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며 결의를 다졌다. 김종주, 이상태, 주재근, 최원도 씨 등을 포함해 현장에 모인 수많은 제과인들은 '투쟁위원회' 를 결성하는데 뜻을 함께 하고, 모두 스무 명으로 구성된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16일 가칭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성식이 대한제과협회 지하 회의실에서 열렸다. 결성식에 모인 제과인들은 보름 전 발기인 대회보다 더욱 결의에 찬 모습으로 속속 나타났다. 발기인 대회를 통해 '나 혼자' 가 아니라 '우리 여럿이 함께' 라는 동료의 힘을 확인한 덕분에 앞으로의 힘겨운 싸움에 필요한 에너지를 그동안 실컷 충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결성식에서는 가칭으로 남아있던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명칭을 '이동통신사 제휴카드폐지 및 생존권 보호 비상대책위원회' 로 최종 결정하고, 공동 위원장으로 김종주 · 유헌식 · 이기남 · 이상태 · 조계중 · 주재근 · 최원도 · 황일하(이상 가나다순) 씨 등 모두 8명을 선출했다. 누구나 마음으로만 바랬던 '투쟁위원회' 가 드디어 제 모습을 갖추고 '8개나 되는 성능 좋은 엔진' 장착까지 마친 것이다.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제과인으로서의 명예와 사명을 걸고 앞으로 투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굳은 결의를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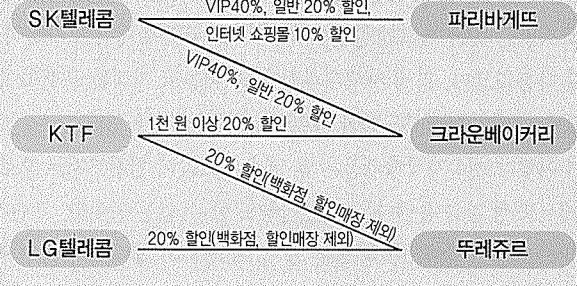
"똑같이 할인하라고? 자영제과점 현실 무시한 발언"

프랜차이즈 제과업체들은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작게는 20%, 많게는 40%나 빵 값 할인을 해주고 있다. 2호 생크림케이크의 전국 평균 가격이 1만5천 원일 때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는 자영제과점보다 3천 원이나 저렴한 1만2천 원에 똑같은 케이크를 살 수 있고, 4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이동통신사 VIP 고객의 경우 9천 원이면 된다. 이쯤 되면 고객들이 가까운 '동네 빵집' 을 놔두고 조금 멀더라도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빵을 살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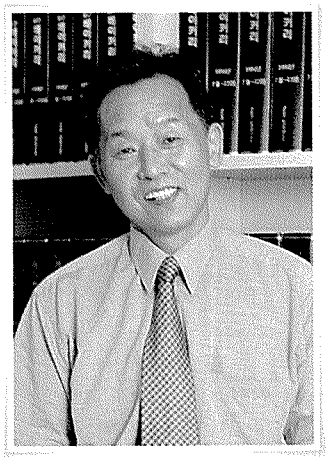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폐지 관련 활동일지

2003년 7월 16일	SK텔레콤 및 KTF에 자영제과점 카드제휴 가능성 타진했으나 곤란하다는 답변 돌아옴
2003년 8월 30일	(주)파리크라상 외 6개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에 할인 등 동종업체간 과다경쟁 자제 협조를 요청
2003년 10월 8일	(주)파리크라상에 터무니없는 큰 폭 할인으로 시장질서 파괴하는 행위 자제 요청
2005년 10월 26일	(주)파리크라상 대표 만나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할인금지 요청 및 제휴 중단 요구해 긍정적 검토 약속 받음
2005년 10월 29일	긴급 전국지회장회의 개최 및 연명부 작성 시작
2005년 5월 4일	SK텔레콤 제휴카드 관계자 만나 제휴카드 제과점 사용 금지 요청
2005년 5월 11일	SPC그룹 허영인 회장과 SK텔레콤 대표이사에 제휴카드 철회 문서 발송
2005년 5월 12일	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 SPC그룹 허영인 회장 만남 요청
2005년 5월 24일	SK텔레콤 대표이사 만남 요청
2005년 5월 27일	SK(주) 최태원 회장 만남 요청
2005년 6월 1일	가칭 투쟁위원회 발기인 대회
2005년 6월 16일	가칭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식에서 공동위원장 8명 선출
2005년 6월 23일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1차 회의
2005년 7월 16일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2차 회의
2005년 7월 26일	비상대책위원회 전국대의원회의 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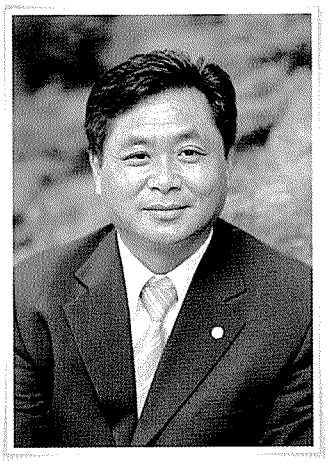
이동통신사 프랜차이즈제과점 제휴 현황



김종주 위원장



유헌식 위원장



이기남 위원장

이상태 위원장

"제과를 천직으로 삼고 삼사십 년 넘게 오직 제과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이제 제과인의 사명감을 걸고 우리 동료 그리고 후배 제과인들의 희망을 위해 뛰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계다가 전 국민의 80%가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동통신사 제휴카드는 누구나 지니고 있는 현대인의 필수품쯤으로 여겨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최원도 공동위원장은 "상황이 이쯤 되면 이동통신사 제휴카드는 자사고객만을 위한 특별한 할인이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 빵 값 할인이나 다름없으며, 영세 자영제과점을 쏙 빼놓고 거대한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잇속만 챙겨주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영제과점은 몇 년째 재료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빵 값을 올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상시할인 탓에 소비자들은 빵 값에 거품이 많다고 생각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영제과점이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경쟁하기 위해 똑같이 20% 할인을 감행한다는 것은 마진율이 20%선을 오락가락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무리수나 다름없다. 게다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일정 부분의 할인보조금을 받는 프랜차이즈 제과점과의 할인경쟁은 오히려 자영제과점을 더욱 궁지로 내몰 위험이 크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사이 여유자금이 바닥나 인테리어나 설비 등의 재투자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인데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공장의 인원수부터 줄이다보니 자영제과점 기술인들이 제품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술 세미나 한 번 마음 놓고 다니지 못해 소규모 자영제과점의 신제품 개발은 정체돼 있다. 자영제과점 모두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주 공동위원장은 "전국의 자영제과점이 대부분 업주 스스로의 제과기술만을 바탕으로 하는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진다"며 우려를 금치 못한다.

비대위 "대기업 위주 영세업자 생존권 위협 맞설 터"

이처럼 지금의 상황이 소규모 자영제과점의 생존권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출범이래 첫 공식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활동방안에 대한 발 빠른 논의에 들어갔다. 존폐기로에 서 있는 그들 이웃의 자영제과점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우선 7월 26일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전국대의원대회는 자영제과점은 물론 제과 관련 단체, 학교 · 학원, 재료업체 등 업계 전반에서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제과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결의를 다지고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될 계획이다.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모금 방향에 대한 대의원 사이의 세부적인 의견 조율도 계획에 두고 있다.

지난 7월 16일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명부 작성 등 그동안 지역별로 진행돼온 투쟁의 성과를 점검하고 전국대의원대회 현장에서의 결의문 낭독은 황일하 공동위원장이 맡았다. "작은 자영제과점들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힘겨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투쟁의 대의명분을 만천하에 알리고, 우리 스스로의 결속을 다지는 차원에서 결의문 낭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스스로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황 위원장은 "아무리 큰 바위라 할지라도 1만 개의 거센 계란세례를 맞으면 깨질 수도 있다"면서 "전국의 1만 여 자영제과점이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버려야 내일의 투쟁 승리도 있을 것"이라고 이번 투쟁에 대한 제과인 모두의 결속을 강조했다.

비상대책위원회 문제로 요즘 대구와 서울을 밥 먹듯이 오가고 있다는 이상태 지회장은 사실 (사)대한제과협회 대구지회장이다. 대구는 지난 1994년 900여 개에 달하던 자영제과점이 10년 만에 640여 개나 줄어

들어 지금은 260여 개밖에 남지 않는 등 자영제과점이 전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 그는 대구지역 제과업계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회원들의 어려움을 못본 척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업계 대표로서 그가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다름 아닌 한쪽 편에만 불공정하게 돌아가는 시장상황이었다.

"우리 대구지역에서 한 업소가 터무니없는 빵 값으로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면 그곳이 자영제과점이라고 해도 지역 업계의 대표로서 분명히 시정을 요구하곤 합니다. 하물며 사회 · 경제적으로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힘을 지닌 대기업이 동네 빵집이 따라할 엄두도 못내는 제휴카드를 날려가며 불공정 거래를 하는데 어떻게 가만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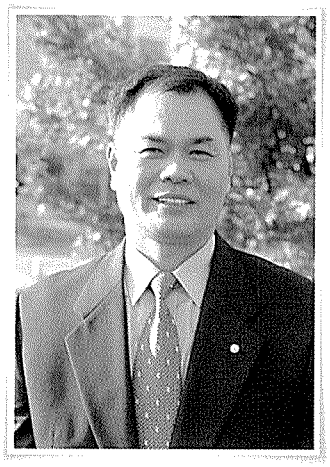
'시작이 반' 1만 자영제과점 단결 최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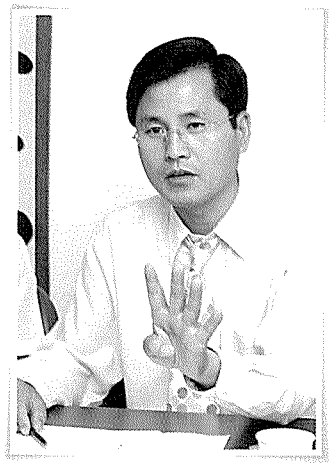
대구지역 자영제과점의 희망과 바람을 양어깨에 짊어진 이상태 공동위원장의 눈에서 굳은 의지가 엿보인다. 이 위원장뿐만 아니라 8명의 공동위원장 모두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자영제과점의 절박한 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터라 이번 투쟁이 마지막 기회인 듯 결연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심스럽다.

"섣부르게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해 가야죠. 이번 투쟁의 승리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국 1만 자영제과점의 단결입니다. 우리가 뭉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주재근 공동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과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 그들의 활동에 지지와 응원을 보일 때 투쟁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렇기에 언론사 홍보나 길거리 투쟁 등에 필요한 활동자금 또한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뜻에서 자영제과점 스스로가 십시일반으로 모금해야 투쟁의 의미가 더욱 빛날 수 있다고 믿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물론 제과인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부족한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해둔 상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이동통신사 제휴카드폐지 및 생존권 보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 투쟁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고 동시에 절반을 온 것이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된 법규나 제도 등 미리 철저하게 알아둬야 할 내용도 쌓여있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투쟁을 포기한 자영제과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들의 진심 어린 설득도 꾸준히 계속된다. 지레 포기할 수도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스스로의 힘으로 고쳐나가기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그들로서는 이미 크나큰 성공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조계종 위원장


주재근 위원장

최원도 위원장

황일하 위원장

"한 걸음 한 걸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해 가야죠. 이번 투쟁의 승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 1만 자영제과점의 단결입니다. 우리가 뭉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 투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의외로 소박하다. 동네의 작은 제과점들이 고객 눈높이에 맞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친절한 고객 서비스를 위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자신의 작은 터전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일궈갈 수 있는 것.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영제과점의 그런 소박하지만 당연한 꿈을 수호하기 위해 나섰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지만 그들은 충분히 각오가 돼 있다.